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진 종 욱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연초 연평균 배럴당 21불 내외로 전망되던 국제유가가 지난 3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최근 배럴당 25불까지 상승한 이후 주변 정세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23~24불대의 고유가를

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물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경제성장을 둔화 등 거시경제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생산비 상승 및 채산성 악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국제석유시장 및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최근 국제유가 동향

(단위 : 두바이유 기준,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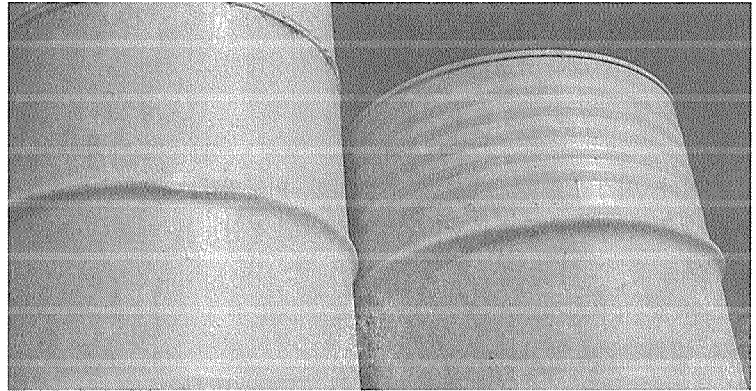
2001년(월평균)					2002년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3	5.6	5.7
24.10	19.68	17.67	17.83	22.82	18.48	19.02	22.96	24.52	24.55	24.20	24.54

※ 2000년 평균 : 26.18\$/b

국제유가가 이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은 세계 석유수급이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악화,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이라크의 30일간 원유수출 중단 발표와 이란, 리비아 등의 동조 발언 등 중동정세 불안과 이에 따른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 등 정치·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네주엘라 석유회사 노동자 파업과 이에 따른 차베스 대통령의 실각과 재집권 등이 세계 최고의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석유재고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해결 노력과 이에따른 이스라엘 일부 철



군 발표와 사우디의 안정적 석유공급 보장 발언,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발표(5.6) 등으로 유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인바 있다.

2. 국제유가 향후 전망

향후의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속도, OPEC의 감산정책과 非OPEC 산유국들의 협조여부 등이 기본변수이나, 세계석유수급 기반은 비교적 안정된 상

주요 예측기관 국제유가 전망(연평균)

(Brent기준, 전망시점 3월, \$/b)

분석기관	2002전망	분석기관	2002전망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24.20	Merrill Lynch	18.25
Daiwa Institute	20.00	HSBC	20.00
JP Morgan	24.60	Royal Bank of Scotland	22.00
Bank of America	19.50	UBC Warburg	20.00
Barclays Capital	22.30	ABN Amro	20.00
Commerzbank	19.00	Cersdner Kleinwort	19.00
Sempra Energy	20.90	Teather & Greenwood	20.00
SG	23.50	Wood Mackenzie	19.50
Credit Lyonnais	21.00	Economic Intell. Unit	19.64
Goldman Sachs	16.00	Petroleum Finance Co.	23.75
CGFB	20.00	CERA	21.75

※ Brent油는 통상 Dubai油 보다 약 1.5\$/b정도 높음



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심리적 불안 및 단기 투기성 자금이 해소될 경우 중장기적인 유가는 안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악화,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중동정세는 여전히 유가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의 추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 유가예측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주요 석유소비국들의 충분한 석유비축물량(OECD국가 : 약 40억배럴) 확보, 非OPEC 산유국들의 시장점유율('01년 : 61%) 확대 및 OPEC의 시장지배력 약화에 따른 증산 가능성이 있어 유가가 추가 급등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최근 IMF의 세계 경제전망 및 미국 캠브리지에너지경제연구소 등 주요기관의 금년도 국제유가 전망에도 여전히 연평균 전망을 21불대로 보고 있다.

3. 고유가 대책

국제유가가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에 따라 연평균 배럴당 21불대를 유지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 고유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국제유가 일일 점검반」을 구성하여 Dubai, Brent, WTI 등 주요 기준유종에 대한 현물가격과 뉴욕상품시장(NYMEX), 런던석유시장(IPE) 등의 선물가격 및 OPEC Basket 가격 등 국제시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가동하여 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선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풍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하는 동시에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에너지 소비 절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가 장기화되거나 직접적인 석유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정부비축유의 민간대여, 교통

세·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적용, 석유수입 부과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아갈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현재 4,4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가격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며, 유사시에는 석유류 수출통제 등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의 단기 급등시에 대한 대응책에 중장기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석유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비축 지속일수를 2001년말의 41일(IEA 기준)에서 금년 말에는 50일까지 크게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석유

비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여유비축시설을 활용한 공동비축사업, 기존 비축유 트레이딩(SWAP)을 통한 자체 수익 확보 등으로 비축유 증량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비축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풍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하는 동시에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에너지 소비 절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2%수준에 불과한 자주개발율을 2010년까지 1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베트남 등 해외 56개 광구외에 카스피해지역 등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원유공급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석유위기는 중동정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한 국내 원유도입 의존도가 2001년에 77%에 이르고 있어 중동의 지역으로의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산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IEA 활동과 국제에너지포럼('01. 9월, 오사카) 등 석유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회원국 및 참가국간의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맺음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 대응의 악순환은 UN의 지속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의 UN 무기사찰문제와 테러지원 등으로 인한 미국과의 긴장 등 전세계 매장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불안

요인은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국가 재정을 석유수입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OPEC 국가들은 유가 부양을 위해 22~28불간 유가밴드제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현재 최근 10여년동안 최저수준의 생산쿼터(2,170만B)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원유공급 전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석유위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장단기적인 대비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국민은 국민대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통한 저소비형 사회 구현해 동참해야할 것이다. ☯

한편, 국가 재정을 석유수입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OPEC 국가들은 유가 부양을 위해 22~28불간 유가밴드제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현재 최근 10여년동안 최저수준의 생산쿼터(2,170만B)를 유지하고 있다.